

土種 홍화씨
합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지리 합양산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계 품종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興國農産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60)070-1300

인도불교 중흥 '희망의 씨앗' 심는다

한국JTS,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운영 5년

유명골 순례객에게 구걸하던 아이들
94년 2월 전정각산 밑 시타림터
수자타아카데미에 모여 공부 시작
5년이 지난 요즘 그 아이들은 인근마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JTS 기본방침은 인도의 발전은
인도인의 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수자타아카데미는 개교 5년만에 지역의 명문 사립학교로 부상했다. 맨 앞줄이 유치원 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중학생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실습실 및 교사기숙사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전에 수행하셨다는 인도 보드가야의 전정각산(前正覺山). 서울 남산 높이의 산 허리에 부처님께서 고려했던 유명골(留影窟)이 있고, 산 아래에는 옛날 시체를 버리던 곳인 시타림(捨行林)이 있다. 부처님께서 성도 전 인적이 드문 이곳에 머물면서 하루에 대추 한 알 정도의 끼니만으로 극도의 고행을 했다고 전한다.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모하나강을 건너면 고령에서 수행하다 쓰러진 부처님께 수자타가 우유죽 공양을 올렸다는 공양터가 나온다.

전정각산 바로 밑 시타림터에는 한국 JTS(Join Together Society, 이사장 법륜스님)가 '수자타의 공양' 정신으로 건립한 수자타아카데미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1월21일 오후 12시, 전정각산 학교 주변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한국에서 온 법륜스님과 50여명의 성지순례단을 반기는 환영식이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과 교사, 동네 주민들에 의해 정겹게 펼쳐졌다. 또 이날 오후 2시에는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인근 마을의 가활비유치원 개원식이, 이튿날에는 학교 부설 전정각사 개원식 및 개교 5주년 기념행사, 마을 순회 쌀나누어주기 행사 등이 이어져 연일 잔치 분위기가 되었다.

1월22일 오전에 거행된 개교 5주년 기념식은 학교 설립·운영과정에서 슬하에 겪었던 어려움을 보상이라도 하듯 엄숙하게 진행됐다. 보드가야 대탈 주변 각 나라 사찰의 스님들과 나라이대탈의 부총장을 비롯한 심여명의 교수들, 가이시의 관리 등 3백여명의 내빈이 대거 참석, 수자타아카데미의 발전에 경이와 축하를 보냈다. 며칠전부터 5주년 기념식 등 이틀간의 행사를 준비해 온 10여명의 교사와 4백여명의 학생들도 자랑스러운듯 입가에 미소가 그치지 않는다.

지난 94년 2월 마을에서 기증받은 5백여평의 땅에 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시작한 수업. 건물도 완공되지 않은 가운데 마을 젊은이들이 자원봉사 교사로 나서 어수선한 가운데 출발한 학교가 이제는 보다 넓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가이시 지역의 사립명문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수백명의 인근 국립학교 학생들이 전학을 해와 학생들이 6백여명에 달한 적도 있다. 학교측은 양민 출신의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아져 불가촉천민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많은 학생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야 했다. 양민 출신 학생들이 많아져야 카스트가 낮은 계층의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과 5년만에 수자타아카데미가 지역에서 주목받는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한 것은 석가족 출신의 교장 수레스(30·석가족불교청년회 회장) 등 교사들의 무급교육과 이덕아(31) 법사 등 JTS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

유명골에 순례온 관광객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던 동네 아이들이었다. 수업도중에 관광객이 연신 소리만 내면 교실밖으로 뛰쳐나간 아이들. 이제는 어엿한 유치원 교사들이 된 것이다. 40여명의 중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받는 대신 오전에는 9개 마을 유치원에서 각각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

치고, 오후에 수업을 받는다. 학생 겸 교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더욱 어른스럽고 교육진도도 빠르다. 학교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2000년부터 중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고 뛰어난 학생들은 대학교까지 진학시켜 의사·교사 등을 양성, 애당십 있는 일꾼들을 길러내려는 계획이다. 이는 JTS와 수자타아카데미가 추진해 온 전정각산 주변

JTS 인도지원 주요사업

- ▲1991년 ▷1월=정호태 지도법사 법륜스님, 인도 내 팔 성지순례시 국제 봉사사업 발원.
- ▲1993년 ▷1월=정호태 제1차 성지순례중 순례단이 부다가야 동계사의 마을에 한국에서 준비해 간 옷들을 나누어 줌. ▷12월=3개월간 현지에서 학교와 병원 설립을 위한 준비, 주민들 의견수렴.
- ▲1994년 ▷1월=동계사의 마을 사립을 땅 90가타 기준 ▷2월=전정각산 아래 수자타 아카데미 신축. 학생 120명 수업 시작. ▷5월 18일=AMERICA JTS 종교법인(회장 법륜스님) 설립. ▷6월=연변대학교에서(조선총사) (한일부흥유적지 소개서) (고구려 발해 유적지 소개서) 발간 지원(조선총 무료배포). ▷10월=INDIA JTS. 사회봉사법인(이사장 프라즈나나드 스님) 설립.
- ▲1995년 ▷6월 동계사의 마을에 팔레라 발행, 김근의 로지텔.
- ▲1996년 ▷8월=한국 JTS 사단법인 인가. ▷11월=전 교생 600명 대상 무료급식 시작.
- ▲1997년 ▷1월=수자타 아카데미 준공식. ▷9월=인 디오JTS 마을개발사업 추진. ▷11월=뉴욕JTS, 나진-선 불 행정장래위원회와 어린이 구호사업에 대한 협의서 교환.
- ▲1998년 ▷1월=수자타아카데미 부설 유치원 준공식. ▷3월=인근지역 마을 유치원 건축 시작. ▷3월=나진-선 불 어린이 영양식 가공 공장 가동. ▷6월=뉴욕JTS 나진-선 불 상주대표사무소 공식 개설. ▷9월=부산-나진 직항로 이용, 매일 1회이상 어린이 영양식 원재료 전달.
- ▲1999년 ▷1월=수자타아카데미 부설 전정각사 개원, 가활비유치원 개원.

법당·유치원도 개원 '축제 분위기'

수자타가 부처님께 공양올렸듯 한국불교가 석가족에 '교육공양'

16개마을 개발사업(식수·농업용수 개발, 주택개량, 문명퇴치, 질병퇴치), 학교 부설 지바카병원의 종합병원화, 학생·주민 기술교육 실시 등과 맞물려 있다. 인도인의 교육과 발전은 인도인의 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JTS의 기본 방침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이·질병·문명의 퇴치가 JTS의 궁극 목적은 아니다. 이는 인도불교의 중흥, 또는 세계의 정도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JTS가 파르나 및 상카시아 지역의 석가족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르나의 불교신자들이 96년 1월에 개원한 아쇼카 보드 비하르(인도 절)와 웨스트 포인트 아카데미를 돕고 있으며, 1천여명에 달하는 상카시아 석가족 불교청년회의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석가족이 자신들이 부처님의 후손들이라는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전. 인도 종교인구의 0.5%에 불과한 불교신자들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힌두교의 아성을 파고들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불자들이 인도에 사찰을 건립하는 등 불교성지로 다시 모이고 있어 희망이 빛이 뻗어가고 있다.

법륜스님은 석가족 앞에서 이렇게 서언했다. "나는 이곳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수자타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듯이 나는 수자타의 후예인 여러분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니까요. 다섯 번의 생을 인도불교의 중흥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인도 보드가야=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JTS는 1월22일 학교주변 7개 마을에 20kg들이 쌀 9백여 포대를 주민들에게 나누어줬다.



○한국JTS는 1월22일 한국에서 조성한 부처님을 모신 수자타아카데미 부설 전정각사를 개원했다.



○1천2백여명의 대지에 출생명 7백여명의 건물 2동으로 구성된 수자타아카데미는 교실, 병원, 도서실, 교무실, 교사기숙사, 유치원 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재봉 실습실.

인도 8대성지 이외의 불교성지들

불교의 4대 성지는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네팔),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 초전법륜이 이루어진 녹야원(까르나트), 열반처인 쿠시나가리 등이다. 또 8대 성지는 여기에서 카필라성(카필라바스투)을 비롯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펼친 주요 무대인 왕사성(라즈기르) 비아디성(바이살리) 사위성(쉬라바스티) 등이 포함된다. 8대 성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부처님 생애에서 의미가 깊은 곳들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쿠단 네팔 타올라 하와이 카필라성 서남쪽 약 5km 지점에 위치한 마을. 부처님께서 보드가야에서 성도 후 재자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정반왕이 이곳을 찾아와 부처님을 만난 일을 기념한 곳. 이모인 마하파사파제가 금리간사를 바친 곳이기도 하다.



니그리아와 현재 현직(現職) 제2왕이며, 과거7월 중에 제5왕인 쿠나람모니불의 탄생지. 네팔 킬라우리코트의 북동쪽 약 7km지점에 위치. 아쇼카왕이 즉위 14년째 되던 해 석주를 세웠다.

영불탑(迎佛塔) 녹야원 주요 유적지에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탑.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5비구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중히 머리를 조아린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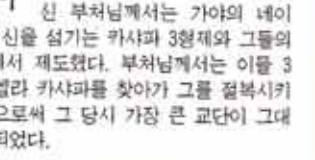
상두산(象頭山) 인도 비하라주 가이시 인근에 위치. 가이 가담의 수행처. 가담 3형제 및 그들의 제자 1,000을 교화한 부처님께서 범비사라왕의 요청에 따라 왕사성으로 가던중 산봉우리에서 타고있던 불을 바라보며 유명한 산상설법을 하셨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탐·진·치의 불로 인해 타고 있다. 탐욕과 어리석음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그는 괴로움으로 여의고 해탈을 이루리라.'



수자타 공양터 가이시 네이리자강 건너편 강물에 서 6분 거리에 위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전 수자타로부터 우유죽 공양을 받아 도를 성취한 '수자타의 공양'은 '출도의 공양'과 함께 '2대 공양'으로 불리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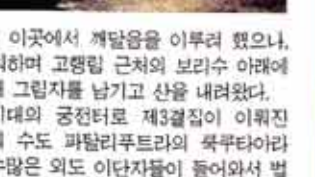
우루벨라가담 수행터 녹야원에서 5비구를 교화한 신 부처님께서 가이의 네이리자 강변에서 불의 신을 섬기는 카사와 3형제와 그들의 제자 1천명을 이곳에서 제도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 3형제중 말한인 우루벨라 카사파를 찾아가 그를 설복시키고 제자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당시 가장 큰 교단이 그대로 불교교단이 흡수되었다.

유명골(留影窟) 전정각산 서쪽 산허리에 위치한 동굴.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직전 수행하시던 곳. 부처님께서 수자타의 공양을 받고 나서 이곳에서 깨달음을 이루려 했으나, 산신과 천신이 두려워하며 고행할 근처의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기를 강하게 그림자를 남기고 산을 내려왔다.



공라야트 아쇼카시대의 중전터로 제3결집이 이뤄진 곳. 당시의 수도 파탈리푸트라(현가이시)의 북쪽가야트(鎭) 상가에는 수많은 의도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불을 손상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쇼카왕의 왕사 목가리웃타 및 사 장로는 천명의 비구를 모아서 이성을 배척하고 정법을 바로 세웠다. 제3차 결집으로 저술된 것이 '논사(論事)'다.

촌다의 공양터 쿠시나가리에서 동쪽으로 17km지점에 위치한 차티하우 마을에 위치. 부처님께서 일만에 들기전 '파마'라는 교외의 한 과수원에 머무셨을 때 과수원의 주인 대장장이 촌다는 부처님을 비롯한 대중에게 최후의 공양을 올렸다.



상카시아 부처님께서는 성도후 천계로 올라가 마야부인과 죽은 사람들을 위해 진리를 설하신 후, 천계에서 3개월을 보낸 뒤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셨는데, 그곳이 바로 상카시아였다.